**2025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참가 접수 개시!**

**올해로 20회를 맞는 아시아 최고의 종합 콘텐츠 마켓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이 오는 7월 1일(화)부터 참가등록을 시작한다.**

**마켓배지 조기 등록: 7/1(화) – 7/31(목)**

**세일즈부스 등록: 7/1(화) – 8/5(화)**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9월 20일(토)부터 23일(화)까지 4일간 벡스코(BEXCO)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sian Contents & Film Market, 이하 ACFM)은 영화와 영상 콘텐츠는 물론, 도서·웹툰·웹소설 등 원천 IP까지 아우르는 아시아 대표 종합 콘텐츠 마켓이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ACFM은 전 세계 영화·영상 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영화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ACFM의 새로운 프로그램**

ACFM은 올해도 **산업의 변화를 읽고 미래를 이끄는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혁신기술과 스토리텔링이 만나 아시아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이노아시아(InnoAsia),** 상반기 아시아 주요 콘텐츠 산업 동향을 총망라한 **A리포트(The A Report)**와 이를 바탕으로 인사이트와 협력방안을 공유하는 **A서밋(The A Summit)**, 그리고 아시아 다큐멘터리 창작자 간의 교류와 협력 플랫폼 **독스퀘어(Doc Square)**가 런칭한다. 이 밖에도 2024년 신설된 **프로듀서 허브**는 올해 캐나다를 공동주최 국가로 선정하고 글로벌 파트너쉽을 더욱 확대하여, 한층 다양한 국가의 프로듀서들의 폭넓은 협력의 장을 연다. 한편, 한국과의 공동제작 프로젝트에 제작비를 지원하는 **ACF 공동제작지원펀드**도 신설하여 지원작을 모집한다.

**세계가 주목하는 ACFM의 지속 성장**

지난해 ACFM은 52개국, 1,031개 업체, 2,644명 등록, 총 26,435명 방문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아시아 콘텐츠 허브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AI 콘퍼런스에는 하루 570명 이상이 참석하여 기술과 콘텐츠의 융합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으며, 프로듀서허브는 한국을 공동주최국으로 하여 국제공동제작 활성화의 출발점이 되었다. 올해는 더욱 풍성해진 신규 프로그램과 함께 창작자, 산업 관계자, 스타트업 등 다양한 참가자들의 활발한 교류와 실질적인 거래 및 성과 창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5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은 9월 20일(토)부터 9월 23일(화)까지 4일간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 9월 17일(수) - 9월 26일(금)

▶ 제20회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 9월 20일(토) - 9월 23일(화)